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령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형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591 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8월 16일(음력 7월 23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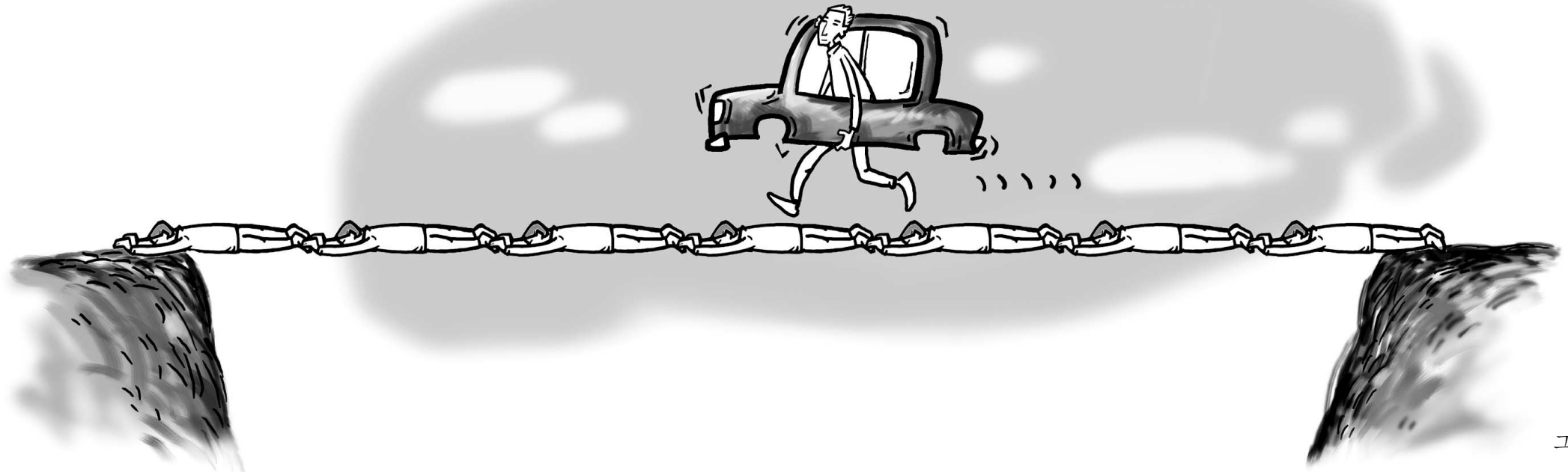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모든 것을 한데 놓고 지켜보고 체험하는게 참선

(지난 호에 이어서)

천도를 시켜달라고 할 때 스님네들이 어떻게 하든 그것을 상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딱 한 그릇을 놓고 하든지 둘 한 그릇을 놓고 하든지.

외국에서 천도를 시켜달라고 그래서요, 초하고 물하고 항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아니라도 되는데 그거라도 방편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날 저녁에 불립없이 나타나서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벌써 영령들은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내주고 다녔지, 다니면서 목탁 들고 다녀, 무슨 뭘 들고 다녀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을 때 한국에서 천도해 달라고 보내도 "알았다."고, 그게 천도지 뭐 다른 건가요. 내 (가슴을 짚어 보이시고) 마음이면, 이 마음이라는 이 자체는 아주 작다면 작고, 없다면 없고, 있다면 이 삼천대천세계를 싸고 도는군요.

그러니 그 관습에 젖어서 무슨 이사를 갈래도 못 가고 날짜를 봐야 하고, 제사를 지내도 왕창 차려놓고 해야 하나? "아휴, 그냥 바쁘기는 한데 이런 것 해야 하고 아휴, 제사가 왜 이렇게 많아?" 하고 그냥 잔소리 군소리 죄 할 거 다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군소리 할 것도 없고, 바쁠 것도 없고 그리고 정성은 정성대로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처럼 뭇사람이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에, 그러니 시대가 발전이 되고 과학, 의학 모든 것이 발전이 된다 하면은 우리 인간도 좀 달라져야 그 발전에 대비를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발전이 돼야 모든 게 물질도 발전이 돼서 나오죠. 마음의 발전이 없는데 어떻게 물질이 발전이 돼서 나오겠습니까?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자(여):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남편이 삼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요, 여태 병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또 수술을 하게 되는데 스님께 좀 도와달라고 왔습니다.

▲스님: 그건 질문이 아니에요. 여기 스님네들한테 관하는 도리를 배워주세요. 관하는 도리는 아십니까?

▲질문자(여): 잘 모르니까.

▲스님: 처음 오신 분이로군. 그러면 관하는 도리, 아가 얘기했죠. 자기가 길을 가다 넘어지면 그 땅을 짚고 일어나야만 일어나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도리를 저 스님네들한테 이따 물어서 알아 가지고 가세요.

▲질문자(남): 오늘 네 가지를 스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주인공에 놓고 말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수행 방법을 강조하지 않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좌선이 좋은 수행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생활이 곧 참선이다 하는데, 과연 생활 중의 모든 언행을 곧 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알른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생활이 곧 참선이라는 스님 말씀의 참뜻을 다시 한 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아이 참, 그저 평상시에도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건데...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있다면 선생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죠. 일상생활의 일거일동입니다. 이 세상이 형성된 것부터 죽는 것 사는 것,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 전체 말입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자기, 자기가 하죠. 자기가 하고 자기가 내고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앉아도 참선이요, 서도 참선이요, 누워도 참선이요, 또 일을 해도 참선이요, 행선·와선·입선·좌선 다 한데 합쳐서 생활하는 자체가 그대로 참선이다 이런 소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따지지 마시고 일상생활의 모든 걸 내 마음속에서 한다, 그냥 들이고 내는 것이 한마음이다 이런 다면, 그냥 거기가 놓고 돌아가면, 믿고 놓으면 그냥 이것저것 따르다 쟁길 게 없이 그대로 놓

“
내게 일일이
다가오는 것
그저 근본에 맡겨 놓고
지켜보는 게 바로 觀!

고 가면 그것이 참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렇게 놓는 반면에 그렇게 놓고 지켜보고, 지켜보는 게 바로 관하는 겁니다.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뭐 별 다른 게 참선이 아닙니다. 내게 일일이 다가오는 것 그저 거기가 맡겨 놓고... 즉 말하자면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봤는데, 차가 망가져도 운전수 탓이고, 차가 발려도 운전수 탓이지, 차를 가지고 누가 말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차 운전수 불되고 야단이지. 하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몸뚱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운전수. 그러니까 그 운전수가 모든 걸 해나가는 거니까 운전수에도 모든 것을 한데 모아서, 그냥 모으고 안 모으고도 없어요. 거기 놓고 그냥 돌아 가는 그것이, 그리고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나 몰라라 거기가 그냥 '너 알아서 해라, 너 알아서 해라.' 이라고 가도 아니 되고, 허허허.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만이 할 수 있어. 가고 오는 것도 다 너만이 알고 너만이 들리가 터지게 할 수 있어. 이끌어갈 수 있어.

어. 이끌어갈 수 있어.' 하는 거죠.

▲질문자(남): 두 번째는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붙잡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착이 없는 여여하게 자유인으로 행하라는 뜻으로 사려됩니다만 그렇다면 마구나가 온다 해도 막지 않고 부처가 간다 해도 붙잡지 않는 것인지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스님: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요, 가는 것 일부러 그냥 쫓아가서 잡고 이리거보다는 가는 것 잡지 않고 오는 것 막지 않고 무조건, 하다못해 부처가 온다 하더라도 붙잡지 않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건 뭐든지, 하다못해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풀떡 삼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 그 도리를 남들을 못합니다. 가는 것 잡지 않고 오는 것 막지 않는다, 이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을 하자면, 즉 말하자면 지금 말했듯이 어떠한 거든지 걸려서 안 된다. 그냥 놓고 가는데, 그 가는 것도 오는 것도 그대로 법인데 뭇 때문에 간다 온다 야단법석을 하겠습니까? 공부하는 도중의 수행자는 그렇다 이겁니다.

▲질문자(남):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공에게 맡긴다, 주인공을 관한다고 할 때에는 말하는 자와 말하는 자, 관하는 자와 관하는 대상이 둘이 아니라 하나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을 '주인공 당신'이라고 하게 되면 마치 주인공이라는 대상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맡기고 그것을 관하는 줄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주인공'하고 자주 생각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공을 대상화하여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스님: 그러게 누가 상대를 두고 해달라고, '주인공! 해주시오.' 하고 하라고 했습니까? '네 몸뚱이 네가 고장 났으면 네가 고쳐서 끌고 가라.' 이렇게 놓으라고 그랬지. 하하하 (대중 웃음) 아니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해결해라.' 그리고 놓으라고 그랬지. 그리고 '네가 벌여놓은 거니까 네가 수습해라.' 하고 놓으라고 그랬지. 하하하. 그것이 마음 없는 마음이 다스리는 겁니다. 이 모두를 들로 보지 마세요. 이 주인공을 상대로 놓고 해달라고 한다면 아니 됩니다. 그것은 벌써 잘못 들어가는 애깁니다. 그러니까 네 몸뚱이 이렇게 만든 것도 너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너니까 네 몸뚱이 네가 끌고 가려면 건강하게 끌고 다녀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놓을 수 있고, 그 놓을 수 있는 마음이 믿음직해야 됩니다. 그냥 장난기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해버리는 그런 것은 핏트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로 보지 말고 열심히들, 어떠한 거든지 들로 보지 마시라 하는 그런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해드렸습니다. 수억집 광년으로부터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광력을 찾고, 이 모든 진화

를 찾고 형상을 찾고 이렇게 해서 돌아온 이 자체를 볼 때에 만나서 헤어졌으면 또 딴 걸로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또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해왔으니, 지금 생각을 한대도 어떠한 부모가 됐을 때 부모라고 하고 어떠한 자식이 됐을 때 자식이라고 할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는 거고 내 형제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모습은 다를지언정 그 마음이야 어찌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말입니다.

▲질문자(남): 네 번째는 오주 홍인 대사께서 육조 스님께 의발을 전하신 뒤 길을 떠나라고 하시니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품을 회(懷)자가 든 고장에서는 머물고 모을 회(會) 같은 데는 감추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인 대사께서 하신 말씀을 스님의 뜻으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
가는 것 잡지 않고
오는 것 막지 않고
무조건
풀떡 삼킬 줄 알아야!

▲스님: 이것을 뜻으로 생각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는 그런 자기가 가는 거지 누가 대신 가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한마음에 뿌리와 나무 가지, 잎새, 열매가 모두 익어서 제대로 맛을 아는 자에게, 그 도리를 아는 사람한테는 행해 주고, 즉 행하고 거기 머무르고, 또 그냥 곁방으로 이렇게 모일 때는 감추어라. 즉 자기가 행하지 마라. 이 소입니다. 이게 이 속마음을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 앞에는, 듣고 받아들이고 하는 자에게는 머무르지만 이게 곁방으로 모여서 흉이나 하고 그러는 자에게는, 곁방으로 하는 자에게는 아예 말문을 열지 마라, 감추어라 이 소리거든요. '그래, 어디 간다 하더라도 네가 알아서 그렇게 해라. 그 자리가 바로 네 자리라.' 이런 거거든요. 맑은 할 줄 몰라도 뜻은 알지 않습니까? 하하하. (대중 웃음)

그러게 이 마음공부를 이끌어가는 이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알고 보면 오히려 더 쉬운 일이지요. 세세생생에 따달리고 들어가면서 이

모습으로 태어나고 저 모습으로 태어나면서 이렇게 하기보다도 거기에서 그냥, 여러분이 오신통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도 훌쩍 벗어난다면 권우와 직녀 속에서 훌쩍 벗어나는 겁니다. 예.

▲질문자(남): 작년 4월 울산 KBS 공개회에서 스님 뵙고 그때 말씀에 마디를 듣고 지금 한 마디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레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다보니까 이제...

▲스님: 뭘 가지고 있다고요?

▲질문자(남): 한 마디요. 말씀한 마디만 가지고.

▲스님: 네.

▲질문자(남): 그런 힘이 있다는 걸 믿고 이제 계속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지난번에 와가지고 울산 아들이라고 질문을 드릴 적에도 다 위우고 있고, 또 먼저 지난 4월달에 와가지고는 제가 질문하러니까 스님께서 박문수 어사 백지 얘기를 미리 하셨습니다. 그레가지고 제가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와가지고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주지 스님께서 울산에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하더니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적에 불상인 부처가 탁 나타났습니다. 도로를 건너는데, 한길을 건너는데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 이게 뭔가.' 하고 찾으려는데 계속 찾으려는데 못 찾았습니다. 오늘 들어와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임마가 저를 놓고 일찍 세상을 버렸습다. 그게 한 네 살쯤 되었습다. 그레 한 네 살쯤 돼서 혼자 걸어 다니면서 놀았어요. 노는데 새로 처녀가 시집을 와서 나를 키웁니다. 이제, 키우는데 노는 걸 보면 혼자면서, 누가 꼭 들인 것처럼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가보면 혼자 있는데 얘기는 둘이 한다 이거야. 아, 이게 뭐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알았다, 이겁니다. 집안에서는 엄마 없이 혼자서 큰다고 만날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거야. 만날 불쌍해라, 불쌍해라 이거야. 그런 말을 흔히 하죠. 그죠. 아, 그것을, 이 도리를 오늘 스님한테 받아들지 못하였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들로 안 보고 하니까 딱 짚어는 전부가 나의 허신이요, 보살이라 미미리미 보여줬는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스님: 하하하.

▲질문자(남): 이게 맞습니까?

▲스님: 예. (대중 웃음)

▲질문자(남): 어쨌든 간에 지금 알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면 잊어버립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잊었는데 '불쌍해라, 불쌍해라' 하는 게 그레 도로를 건널 적에 부처가 나타나는 거고 그때 '불쌍해라, 불쌍해라' 한 그 소리가 '불상을 네가 해라.' 이 소리가 아십니까? 그죠?